

경제

‘노노갈등’... 기아차 임금협상 ‘복병’

집행부 선거 앞두고 계파별 선명성 경쟁
협상지연으로 회사·지역 주민 피해 커져

노노 갈등이 기아자동차의 임금 협상을 가로막는 ‘복병’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9월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노조가 계파별 선명성 경쟁에 휘말리면서, 협상타결이 100일 넘게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있다’며 ‘좀벌레’ ‘무능력’ 등의 표현을 동원해 기아차 본조를 공격했다. 정비자회도 14일 소식지에서 “31일까지 4시간을 원천으로 파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이를 만에 모든 투쟁전술이 바뀌었다”며 본조 집행부가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별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본조와 지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것은 9월로 다가온 집행부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려는 계파별 전략 때문이라는 것이 기아차 인력의 분석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대기업 노조의 기업지부를 얹고 지역지부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어서, 지역지부의 새로운 자리를 노리는 각 계파의 물밑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명드는 것은 회사와 지역민들이다. 광주공장의 경우 누적생산손실이 1만1천300대, 1천880억에 이르며, 기아차 전체적으로는 3만여대 손실과 5천여원의 매출손실을 입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인근 상권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17일부터 또 주야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돌입해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光銀 인턴 화이팅! 광주은행 인턴십과 직장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성공적인 연수를 기원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광주은행은 올 하반기에도 3개월 과정의 인턴 70명, 2개월 과정의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100명을 선발, 연수를 하고 있다.

지역민 ‘비싼 돈’ 쓴다

은행, 담보 불구 자영업자·중소에 대출 기회
지역 대출금 40% 2금융권서 고금리로 조달

韓銀 지역별 대출금 동향

Table showing loan trends by region (Seoul, Gyeonggi, Chungcheong, Jeolla, Jeju) for 2007 and 2008.

대양광 사업을 준비중인 최모(48·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이달 초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광주의 한 시중은행 지점을 찾았다. 발걸음 풀려야 했다. 사업부지로 사 놓은 전북 부안 지역 밭과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3억원의 대출을 요청했지만 담보가치가 기준(감정가의 40%)에 못미친다며 거절 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호남지역의 대출금 잔액 74조7천241억원 가운데 예금은행(제1 금융권) 대출금은 62.3%인 46조5천98억원인 반면 제2 금융권 대출금은 37.7%인 28조2천143억원이었다. 경기·영남·충청 등 타 지방의 경우 제1 금융권 대출 비중이 평균 72.5%로 호남권에 비해 10.2%포인트 높았다.

년만에 1%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같은기간 타 지역은 72.3%→72.4%→71.9%→72.5%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한국은행측은 이처럼 호남지역에서 제2 금융권 대출 비중이 높은 이유를 타 지역에 비해 자영업자 등 영세상인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씨는 결국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연 1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최씨는 연간 이자로 3천450만원을 부담하게 돼 은행(연 7.5%)에서 대출받았을때보다 1천200만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됐다.

제1 금융권과 제2 금융권의 대출이자 차이는 연 평균 4~5%포인트로 그만큼 호남지역민들은 비싼 이자부담을 안고 대출을 받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호남지역의 경우 제1 금융권 대출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어 지역민들이 비싼 이자부담을 안고 제2 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조세와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여기에 기업의 미래 성장가능보다는 담보제공 능력 등을 중시하는 제1 금융권의 보수적 대출 관행도 한 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도 예금은행의 대출금 증가율은 전국 평균 3.3%였지만 호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0.7%로 뒷걸음질 쳤다”며 “은행들은 영세상인이 많은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원활한 자금지원으로 가능성 있는 기업을 키우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리해고’... 금호타이어 교섭 ‘기로’

“706명 구조조정”... 노동청 신고서 제출
노조측 “받아들일 수 없다”... 충돌 조짐

금호타이어가 ‘정리해고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정리해고 절차에 착수했다. 노조측도 ‘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 전 준비를 벌일 태세여서 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노사가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를 광주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신고서에서 금호타이어 측은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라 공장운영규모의 축소가 불가피 하다’며 “그에 따른 인원력 태세에서 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노사가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가 8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이미 ▲근속연수(20점 배점) ▲근무태도(20점) ▲부양가족(5점) ▲보훈 여부(5점) ▲징계(20점) ▲회사 관련 불법행위(10점) ▲포상(10점) ▲부부사원 우선 적용 등을 위주로 한 ‘해고 기준’도 노조에 통보했다.

책위원회를 열어 현재 벌이는 4시간 부분파업의 강도를 높이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그러나 집행부 선거가 9월 2일로 예정된 불법행위(10점) ▲포상(10점) ▲부부사원 우선 적용 등을 위주로 한 ‘해고 기준’도 노조에 통보했다.

지역 경기 좋아졌다

광주·전남 7월 어음부도율 0.34%P 하락

광주·전남지역의 7월 어음부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어음부도율은 0.38%로 전달의 0.72%에 비해 0.34%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지난 3월 부도 처리된 중견 건설업체 등의 부도금액 감소 덕분에 전달의 1.12%에서 0.61%로 0.51%포인트 하락했고, 전남

도 0.17%에서 0.12%로 0.05%포인트 떨어졌다. 부도금액은 128억7천만 원으로 전달의 228억9천만 원에 비해 100억2천만 원(43.8%) 감소했다.

Table with financial indicators: 코스피지수 (1,547.06), 코스닥지수 (517.83), 금리 (4.46%), 원·달러 환율 (1,256.90원).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 advertisement.

수완지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wan area with contact info 062)951-6800.

대인동삼일부동산.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area with contact info 02)223-1140.